

메인 기획 Main Proposal

대학의 세계화, 협력의 길을 찾다

Globalization of Universities:
Finding Paths in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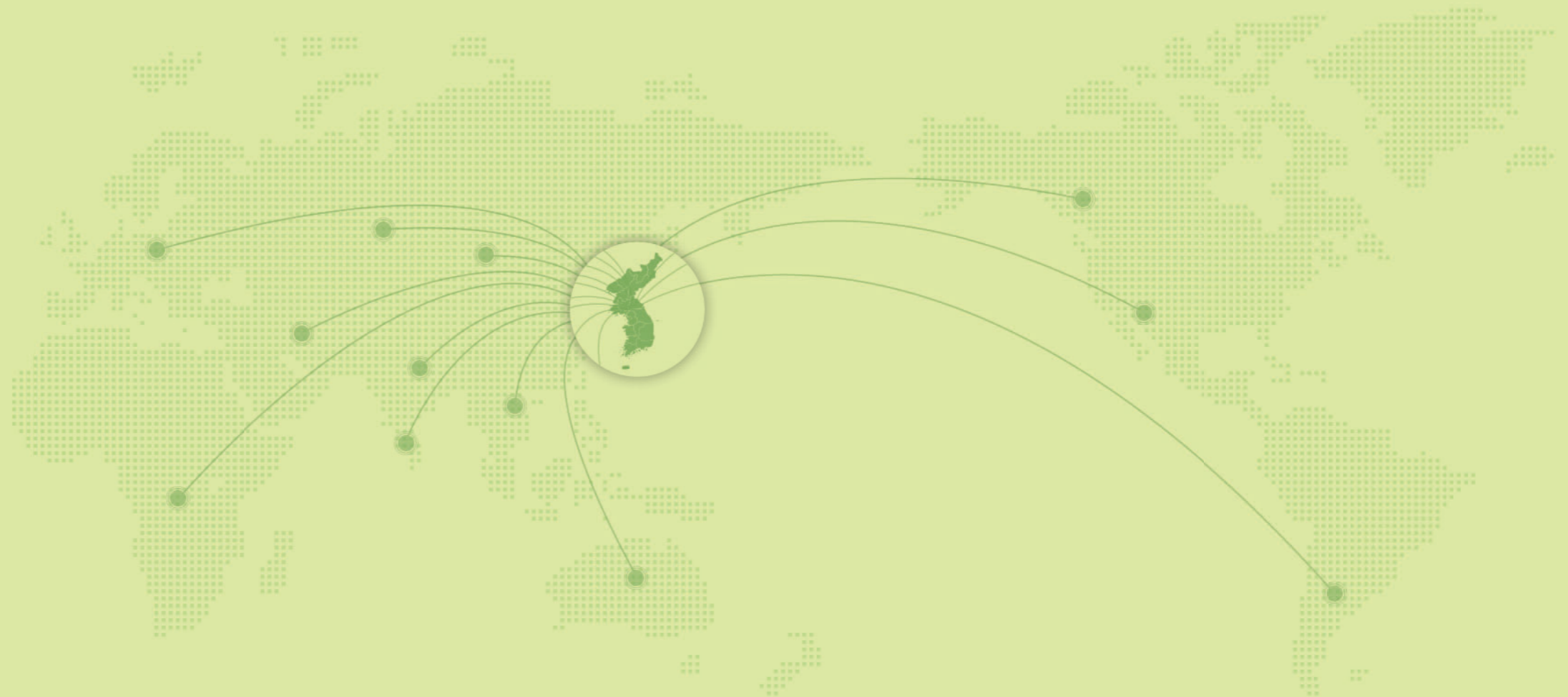
대한민국 거점 국립대학교 소식지

Vol.9 (Ninth Issue)

April 2020

Korea NU10 MAGAZINE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발 간 등 록 번 호

11-7000126-000051-08

ISSN 2635-411X

Korea NU10 MAGAZINE

APRIL 2020 Vol.9

CONTENTS

인사말 Greetings

- 04** 힘든 시기를 이겨낼, 거점 국립대의 저력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potential of Korean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to get through this difficult time

메인 기획 Main Proposal

대학의 세계화, 협력의 길을 찾다 Globalization of Universities: Finding Paths in Cooperation

- 06**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Beyond the Region, to the World
- 09** 성공적인 국제협력사업의 요건
A key to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 12** 대학 국제화 교육의 나아갈 길
The Way Forward for University Internationalization Education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 15** KNU-10, 거점 국립대 연합체를 생각한다
KNU-10, Thinking of an Association of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거점 국립대 소식 Korea NU10 News

- 18**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개최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Performance Forum
- 20** 거점 국립대 9곳, 2020년 3월부터 '원격수업' 통합 시범 운영
The First Meeting of the Presidents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 22** 2020년 캠퍼스의 봄은 여전히 아름답다
Spring on Campus in 2020 is Unchangeably Beautiful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 26**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28**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30** 경상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32**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 34**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36**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38**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40**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 42**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44**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NU10 소개 Introduction to Korea NU10

- 46** Introduction to Korea NU10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거점 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발행일 2020년 04월 15일(통권 제9호)

발행인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작 굿디자인연구소 (Tel. 051-796-6600)

Date of issue 15/04/2020 (Vol.9)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el. 051-796-6600)



08



11



19



20

힘든 시기를 이겨낼, 거점 국립대의 저력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potential of
Korean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to get through this difficult time

김상동 Sang-Dong Kim, Ph.D.

2020년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경북대학교 총장
Presi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20 Chairman, The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참으로 잔인한 봄입니다.

새 희망으로 설레어야 할 캠퍼스가 코로나19 사태로 적막할 정도입니다. 모든 거점 국립대가 학위수여식, 퇴임식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고, 개강을 미루었습니다. 희망에 찬 신입생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입학식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적막하게 시작한 새 학기지만 대학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난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총장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사 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발 빠른 움직임이 대학 내에서 집단 감염이 없는 큰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들은 2020학년도 1 학기를 비대면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준비 시간이었지만 대학마다 철저히 준비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수학과 있지만, 학교로 오지 못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특히 2020학년도 1학기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으로 입국하기로 했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난관이 있더라도 거점 국립대의 소명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거점 국립대는 모두 지역민의 요구와 지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첫 지향점에 주목하여야 할 때입니다.

모든 거점 국립대는 국민들이 바라는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였고, 이들 동량지재들이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저력은 위기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국가의 인재를 키우는 대학의 본질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0년, 거점 국립대가 가진 사회적, 경제적, 학술적 가치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What a cruel spring it is.

The campus that should be excited by new hope is desolate with the spread of COVID-19. Al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have cancelled large-scale events such as commencements and retirement ceremonies, as well as postponing the start of the new semester. The unprecedented new semester started with non face-to-face greetings for the entrance ceremony. Though we started a silent semester, I sincerely hope all university members soon return to their normal lives in good health.

On February 5,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eld a "President's Council on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s" and discussed academic schedules and future measures. I believe this rapid response has been a big reason for the lack of mass infection in universities. All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started the first semester of 2020 with non-face-to-face lectures. There was not much time to prepare, but each university tried to minimize potential problems by preparing as thoroughly as possible. Now, most students are studying diligently under the unique circumstances, but there are many students who haven't been able to come to school. In particular, many foreign students who decided to come to study abroad in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for the first semester of 2020 had to change their plans. We are in the middle of a very difficult situation.

Nevertheless, no matter how big the obstacles are, they must not thwart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We were established to support the needs of the people in the region. Now is the time to pay attention to our initial calling.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have been reliably producing first-class talent that people expect, and these dynamic resources lead the country and the region. Based on these achievements, our potential has been further illuminated by this crisis. It's time for all of us to join forces in the essence of universities that raise the nation's talents. In 2020, let's move forward together to further expand the social, economic and academic value of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대학의 세계화, 협력의 길을 찾다

Globalization of Universities Finding Paths in Cooperation

한국의 국제적 지위 및 대외 이미지가 예년에 비해 수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유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국제교육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과 해외 대학에서 바라보는 성공적인 국제협력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external image are improving exponentially compared to previous years. In line with this,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has exploded, and Korea's status in international education is being recognized. Let's look into the steps needed to internationalize our nation's higher educa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a foreign university's perspective.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Beyond the Region, to the World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장
Kim Young-gon
Presid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IIED)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눈부신 기술혁명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몇 해 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등장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AI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 계획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인적자원의 보유 수준은 다가오는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원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인시아드(INSEAD)는 올해 '인공지능시대의 글로벌 인재'를 주제로 '2020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GTCI)'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장성, 지속성, 매력도, 글로벌 지식 등과 같이 인적자원 관련 경쟁력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 132개 국가 중 종합 순위 27위를 기록하였다. 종합 순위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평가 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시장 전망, R&D 분야 지출, 읽기·수학·과학 교육 수준 등의 항목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순위를 기록하여 두각을 보인 반면, 세계 각국의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의 매력도 부문에서는 국제 학생 수 기위, 내부 개방성 78위, 사회적 이동성 104위 등과 같이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성장 잠재력과 혁신 가능성을 갖추었음에도

With the brilliant technological revolu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lready taking place around us, th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emerged through the World Economic Forum a few years ago, no longer feels strange. Governments and global companies are scrambling to come up with plans to invest in the AI sector and nurture human resources, and the level of human resources that can develop and utilize highly advanced technologies is expected to determin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n this upcoming era.

Reflecting on this social atmosphere, France's INSEAD, one of the world's top business schools, recently released its "2020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with the theme "Global Talent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fter a comprehensive review and analysis of human resource-related competitiveness areas such as growth, sustainability, attractiveness and global knowledge, Korea ranked 27th overall out of 132 countries. What should be noted more than the overall ranking is that the scores of each evaluation item clearly show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Items such as market outlook, spending in R&D, reading, math, and science education levels stood out, recording the world's highest rankings, while generally low ratings were recorded in other areas such as society attractiveness, where Korea came in 71st in international student level, 78th in internal openness and 104th in social mobility. Despite having sufficient growth potential and innovation potential, this is a reminder of our reality that we need to continue efforts to enhance the ability and openness of society as a whole to attract talented people from around the globe and secure sustainable growth potential.

불구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갖출 수 있 으려면 사회 전반의 국제화 역량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우리의 현실을 깨우치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와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고도의 기술 개발, 우수 인재 양성의 근간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요청하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비단 대학 교육의 혁신 을 통해 국내 우수 학생들을 미래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시키는 것 에만 그치지 않고,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 확보하여 지속적 발전 을 도모한다는 측면까지 확장되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역량 제 고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각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 결과, 2016년 10만 명을 넘어선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이미 지난해 16만 명을 넘어섰으며, 해외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유학 박 랍회도 개최 국가와 도시의 범위를 확장해가며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유학 시장 규모 중 국내 유학생 시장 규모가 2% 수준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여전히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달성해야 할 과 제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은 우리나라 교육 분야 국제교류와 협력을 담당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고등교육분야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원 의 대표 사업으로 손꼽히는 정부초청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은 해외 우수 인재들을 선발하여 국내 대학(원)에서 학 위 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이다. 1967년 시작한 이래로 동 프로그램 장학생은 올해 1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이 중 다수의 동문들이 세계 곳곳에서 장관, 국제기구 수장, 교수, 언론 인 등 영향력 있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에 게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연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 가 간 교육 교류 증진을 넘어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통한 친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지향점까지 훌륭하게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초청 장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 2001년부터 한국유학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2004년 「Study Korea Project」에 따라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 유치를 목 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표 조기 달성 이후 2012년까 지 유학생 10만 명 유치, 이후 2023년까지 20만 명 유학생 유치로 목 표를 재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전반기에는 유학생 유 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개최지를 선정해 왔 으나,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 확대와 함께 유치 국가 다변화를 추구

As if to comprehensively reflect the results of these evaluations and the social atmosphere, there have been growing calls in our society for changes and innovation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ich can be considered the basis for developing highly skilled technology and fostering talent. This demand is not only focused on growing the nation's top students into a dynamic future society through innovation in college education, but is also focused on attracting and securing top notch talent from each country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leading to requests for the enhancement of the capabiliti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Korea is also making an active effort to attract talente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by setting up strategies to attract students and improving the conditions for their settlement. As a result,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which topped 100,000 in 2016, exceeded 160,000 last year, and the overseas study fairs held in major cities have been thriving, expanding the scope of host country and cities. Despite such achievements, however, the fact that the Korean student market is only 2 percent of the global market for studying abroad shows that the task of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still remains to be achieved.

In response to these tasks of the time and social need, the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NIIED) is pushing various polic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sector as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in charg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of our country. The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one of the leading projects of the NIIED, is an international scholarship program that selects talented people from abroad and supports their studies for degrees in Korea. Launched in 1967, the number of scholarship recipients is now set to surpass 10,000 students this year. Many of the graduates have become influential leaders including ministers, hea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fessors and journalists around the world. Using this process, the government is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which consists of building a friendly network through fostering next-generation global leaders, as well as enhancing education exchanges between countries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y and research to foreign students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NIIED has been holding Study Korea Fairs since 2001 to create a foundation for attracting GKS students, both those invited at the government level and other outstanding students, and strengthening its global competitiveness. Under the 2004 "Study Korea Project," the government set the goal at attracting 50,000 students by 2010. The goal was reached earlier than expected, and subsequently the goal was reset to attract 100,000 students by 2012 and 200,000 students by 2023. The first half of the project focused on attracting more foreign students and study fairs took place mostly in Asian countries. However, recently, effort has been focused on expanding host cities by seeking to diversify the host countries and increase attractiveness.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which had been on the decline since 2011, has been shifting back to an increase starting in 2015. Proving the study result that showed recruiting one foreign student equals about \$15,000 economic benefi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epping up efforts to secure research, industrial personnel, and

하여 개최 도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1명을 유치할 때마다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방증하듯, 세계 각국에서는 우수 해외 인재 유치가 미래를 대비한 국가 전략이자 자산 확보라는 인식 하에 연구·산업인력의 확보,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 안에서의 교육 경험을 넘어서 직접 해외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감각을 익히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미 정부가 협력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는 WEST 프로그램 역시 2009년 시행된 이래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1년 이내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미국에 파견함으로써 현지에서 어학연수, 인턴십 체험, 여행 등을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 향후의 진로 탐색 기회는 물론, 취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재까지 약 3,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해외 방문 기회나 다양한 취업 준비 경험을 상대적으로 갖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선발 단계에서부터 우대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로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최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획득을 계기로 놀라운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온 교육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의 수효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의 경쟁을 넘어서 더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과 사회를 선도해나가는 대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그간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유학생 유치, 관리 체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간 교육 교류 협력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체계화하여 제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분명하다.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지금은 대학의 교육 혁신과 국제화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인재들이 곳곳에서 국가의 격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때이다. 국립국제교육원 역시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며 함께 나아가갈 것을 약속한다.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와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의 가슴 뛰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talented foreign student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enhancement of the image of the nation.

In addition, the WEST program, co-operated by the Korean-American governments, has also been active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09 for students who wish to go abroad to gain experience and develop a global sensibility. Students still enrolled in the college or who have graduated within the past year can apply for the program and be sent to the US to develop global abilities through language training, internship experience and travel. They are provided a variety of programs related to employment, as well as opportunities to explore future career paths. Around 3,800 students have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to date. In particular, numerous policies are in place for students who have relatively limited opportunities to visit overseas destinations or experience job preparation activities to gain exposure to opportunities to enhance their global competency by giving them preferential conditions beginning from the selection stage.

The interest in Korea, which began with Korean cultural content such as K-pop and Korean dramas, has been escalating at an explosive pace following the recent film Parasite's four Academy Awards. This interest is expected to naturally lead to demand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In response to this increased international attention and the rapid changes in the world surrounding us, it is time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education on the basis of broader perspectives beyond our internal competition. To this end,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other actors in the educational scene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and cooperate. At its core, the university's role is to lead the region and broader society through change and innov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rapidly spreading COVID-19, some people are raising concerns about the system of attracting and managing students, whi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However, it is clear that cooperation in educational exchanges between countries is an untenable task of the current times, as previously stressed, and that the system should be redesigned and this challenge be used as an opportunity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by overcoming this crisis. As we have repeatedly stressed, it is time for all of us to cultivate the talent to lead the world to educational innovation, enhance internationalization capabilities in universities, and to strive to make these talents an asset for the future. The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promises to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the university scene and to advance together with policy support to achieve our common goals.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of our universities, which will have our hearts pounding with pride as we not only lead regional development, but also the nation, a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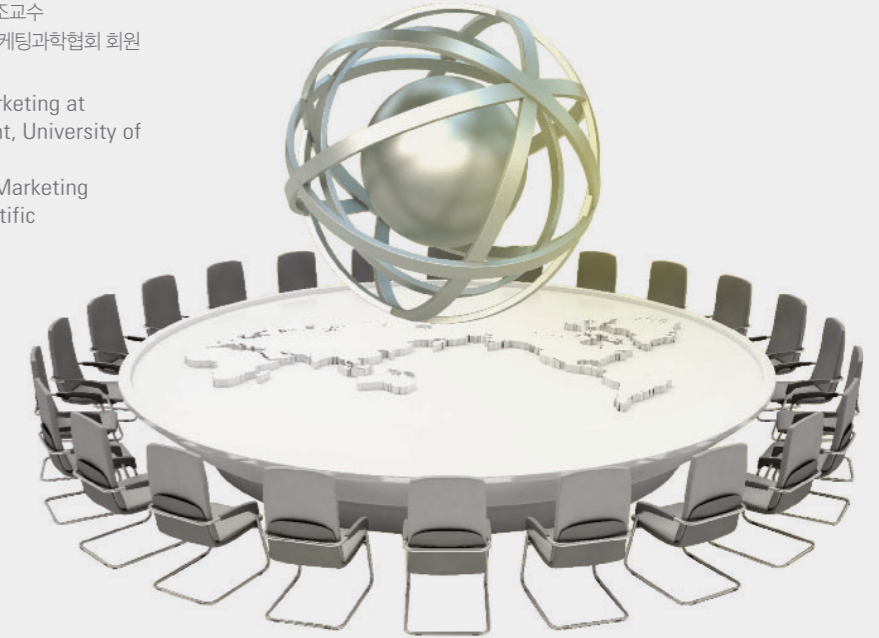
성공적인 국제협력사업의 요건

A Key to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카타르지나 디자바노브스카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경영대학 조교수
유럽 마케팅 아카데미/폴란드 마케팅과학협회 회원

Katarzyna Dziewanowska
Assistant Professor in Marketing at the Faculty of Management, University of Warsaw, Poland
Member of the European Marketing Academy and Polish Scientific Association of Marketing



오늘날 세계화 추세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다. 젊은이들이 세계 각지 다양한 곳에서 직업을 찾고 있는 현실 가운데 경영교육에서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세계 경제와 정치, 문화적 측면에 대학의 심도 있는 이해와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글로벌 커리어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데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경영대학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해 오면서 지난 10여 년간 한국 파트너대학을 포함하는 다수의 컨소시엄에 참가해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다. 학생교류에 집중하는 단순한 상호 협정으로 시작된 협력은 유럽과 한국에서 수학과 인턴십 모두를 제공하는 SAIPEKS(Study Abroad and Internship Opportunities for European and Korean Students, 2008-2011) 프로젝트로, 이후에는 EU와 한국 양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KEUDOS(Korean-European Union Degree Opportunity for Students 2013-2016)로 발전하였고 각 프로젝트마다 성공적으로 EU 위원회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모두 학생들에게 해외 명문대학에서의 수학과 실질적인 직업경험, 더 나아가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더욱 중요하게는 가치관을 넓히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평생 지속되는 사람이라는 자산과 국경을 넘는 우정을 얻게 했다.

There is no denying that in today's globalized worl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is inevitable. It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case of business education, as young people nowadays find jobs in distant and sometimes unexpected places. Universiti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preparing their students for a successful global career combined with deep understanding of current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As a researcher and coordinator of international exchange at the Faculty of Management, University of Warsaw in Poland, I have had the pleasure to participate in several multinational university consortia over the last decade that have included Korean partner universities. Starting with simple bilateral agreements enabling student exchange, we progressed to Study Abroad and Internship Opportunities for European and Korean Students (SAIPEKS, 2008-2011) and then to Korean-European Union Degree Opportunity for Students (KEUDOS, 2013-2016), each time successfully obtaining European Commission and Korean Government funding. These projects focused on students and offered them opportunities to study in prestigious universities, obtain practical job experience and receive double degrees from European and Korean universities. Also -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 to broaden their horizons,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s and build life-long relationships and friendships.

It must be emphasized that relationships have not been developed only by students. On the contrary, academic and administrative staff from participating universities developed close bonds that made cooperation seamless. This in turn has led us to a new

하지만 이러한 관계의 발전이 학생들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러 해 동안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원과 행정직원 간의 연계도 점차 끈끈해져서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로 글로벌 기업인재경영 프로젝트인 GETM3 (Global Entrepreneurial Talent Management 3)를 2017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EU 위원회(Horizon 2020-MCSA-RISE)에서 백만 유로와 한국연구재단의 대응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대학으로는 영국 노샘브리아대학, 폴란드 바르샤바대와 바르샤바공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 아일랜드의 더블린 시티대와 더블린공대, 그리고 한국의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그 밖의 기관으로 대구의 메가젠임플란트, 슬로베니아의 콜렉터, 아일랜드중소기업연합 등 16개의 기관이 참가했다. 이전의 프로젝트들과 달리 이번 프로젝트의 포커스는 연구혁신과 직원 교류이다. 프로젝트 4년 기간 동안 폴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한국의 100 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200개월 이상의 상호 파견을 통해 파트너 기관을 방문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직업중사자들과, 대학 및 학생 입장에서 학제 간 인재경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프로젝트 참가 연구원들은 인사관리, 마케팅전략, 기업가정신, 유통 및 정보시스템 등 경영분야뿐 아니라 디자인, 심리, 컴퓨터과학,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품질경영, 금융 관리 및 글로벌 교류 경영 전문가들과 상호 협력하여 프로젝트 정책과 프로세스 운영 개발을 이끌어냈다.

GETM3와 같이 복합적인 프로젝트의 운영은 많은 코디네이션을 요한다. 매 분기마다 기획된 네트워킹 이벤트마다 인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였고 3차년도 이후부터는 많은 결과들이 형태를 갖추어 5개국에서 데이터

adventure – Global Entrepreneurial Talent Management 3 (GETM3) – a project that was launched in 2017 and received funding of almost 1 million euro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Horizon 2020-MCSA-RISE) and matching funding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re are 16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ncluding universities: Northumbria University (UK), University of Warsaw and Warsaw University of Technology (Poland), Ljubljana University (Slovenia), Dublin City University and Dublin Technological University (Irel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and industry, including Megagen Implant in Daegu, Kolektor in Slovenia and the Irish Association of SMEs This time the focus is on research innovation and staff exchange. During a 4-year period, over 100 researchers from Poland, UK, Slovenia, Ireland and South Korea have undertaken over 200 month-long secondments at partner institutions and studied employers, universities and students' perspectives on talent management in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context. Researchers have been drawn from business subjects such as human resource management, marketing, strategy, entrepreneurship, logistics and information systems as well as other disciplines such as design, psychology, computer science and the built environment. They are complemented by experts in project management, risk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mobility management to help develop and run the project policies and processes.

A project as complex as GETM3 requires careful co-ordination. Staff secondments are planned around quarterly networking events that circulate around the partner institutions and allow for the creation of new ideas, networking and dissemination of the project results. After more than 3 years, many results are tangible and comprise data collected in 5 countrie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authored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These impressive outcomes are accompanied by no less important, intangible effects: increased cultural sensitivity,



가 도출되고 공동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공저자 논문들을 발표했다. 이러한 놀라운 연구의 결과는 보다 중요한 결과물들을 도출해냈다. 상호간 더욱 증진된 문화적 이해, 업무적 부분뿐 아니라 개인 역량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간에 쌓인 신뢰와 우정이 바로 그것이다. 함께한 시간과 경험이 축적될수록 우리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고 프로젝트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 참여자의 헌신, 열린 마음 그리고 성실한 참여가 프로젝트의 모든 결정과 사업수행에 있어 깊은 신뢰의 근간이 되었다. 초반에 경험했던 언어장벽과 기관별 규범의 차이,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들은 우리가 우리만의 제 3의 언어와 규범, 문화를 창조해냄으로써 그 색을 잃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해답을 찾아내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다. 지식의 열린 환경과 경험 공유, 정직한 대화와 위대한 마음이 모여 앞으로 더욱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훌륭한 성취를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서 이루어 낸 것이 자랑스럽다.

professional and personal development and... friendships. With time and experience we have realized that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can easily be overcome and the factor which makes the biggest impact on project's success is individual people. Their commitment, openness and hard work have led to deep trust underlying all decisions made and actions undertaken. Initial misunderstandings resulting from language misinterpretations, different institutional regulations and various national cultures have all lost their significance as we have developed our own 'third' shared language, rules and culture. Although challenges are unavoidable, such as the current outbreak of coronavirus that has affec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obility, we are confident that we are able to find solutions and support each other. The open environment of knowledge and experience sharing, honest conversations and great minds combined will undoubtedly result in further successful co-operation. We are particularly proud to have achieved this on two distant continents, Europe and Asia.



이 프로젝트는 EU의 Horizon 2020 연구혁신프로그램(Marie Skłodowska-Curie 지원협약 No 734824)의 재정지원 사업이다.

This project has received funding from the European Union's Horizon 2020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 under the Marie Skłodowska-Curie grant agreement No 734824.

대학 국제화 교육의 나아갈 길

The Way Forward for University Internationalization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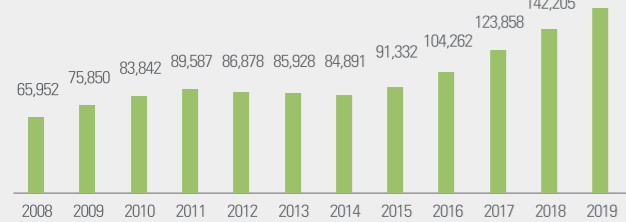
탁원영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장
Won Young Tak, M.D. PhD
Dean of International Affair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한류의 기세가 연일 뜨겁다. 본교에서 2001년 1인 오피스로 국제교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제교육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생소해 적지 않은 홍보가 필요했지만 2020년의 한국은 BTS 신보가 수많은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제작영화의 아카데미 수상을 전 세계로부터 축하받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6만 3천 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이 작년에는 16만 명으로 10년 새 250% 이상 증가했다. 국제교류 초기 중국 등 특정국가에 편중되었던 국적도 보다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 및 대외 이미지 수직 향상에 걸맞게 유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국제교육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인정받고 있다.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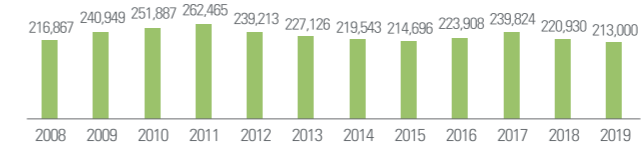
The Korean Wave has been swelling larger by the day. When we began our one-person international office in 2001, Korea needed a lot of publicity in the international education market, but now Korea has become a country where BTS's new releases top the charts in numerous countries and its movie is congratulated by the world for winning Academy Awards. According to statistics compiled b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which stood at around 63,000 in 2008, has increased by more than 250 percent in the past decade to 160,000 last year. International exchange, which was biased toward countries such as China in the early days of study abroad, is also expanding to more diverse locations. The number of students studying abroad has exploded in line with Korea's vertical improvement of its international status and foreign image, and Korea's status in international education is likewise receiving more recognition.

Notwithstanding, unlik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flowing into Korea,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is fluctuating. Notable is that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has been on the decline outside of the period between 2008 and 2011 (216,867→262,465) and the period between 2015 and 2017 when the number of Korean students increased slightly (214,696 → 239,824). This decline was seen most drastically with numbers reaching 213,000 in 2019 and even lower in 2008 with 216,867.

반면 한국인 유학생 수는 외국인 유학생 수와 달리 등락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08-2011년 사이 한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한(216,867명→262,465명) 기간과 2015-2017년 사이 소폭 증가한(214,696명→239,824명) 기간을 제외하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213,000명으로, 2008년 216,867명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 한국인 유학생 수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KEDI)



내교 외국인 학생 수와 달리 해외 파견 내국인 학생 수가 감소 또는 정체하게 된 원인은 사회적 흐름, 교육의 가치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과거에 비해 유학을 하지 않고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나 여유가 많아진 점이나, 국내 고등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해외 유학이 과거보다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 등 확실하고 안정적인 진로로, 해외유학은 투입 대비 성과가 도출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성과의 만족도(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또한 보장할 수 없으므로 학문후속세대의 진로선택으로서 위험부담이 크다. 또한 교환학생 경험 및 방학 중 단기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취업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화 경험이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그리고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득해도 당장 취업이 급한 그들에게는 요원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화 교육은 정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우리나라의 교육 부분에서 순위 밖으로 밀어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EU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서 답을 찾아보려 한다.

EU에서는 일찌감치 1987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시작해 국가별 교육장벽을 허물고 학생뿐 아니라 교원 및 행정직원까지 활발한 인적교류를 펼쳐왔고 2014년에는 한층 발전된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더욱 확대된 교류의 장을 열었다.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닌 각 국가에서 교육 교류에 유연성을 더하자 정치 경제공동체인 EU의 굳건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자국문화에 대한 쿼터가 높던 프랑스마저 빗장을 열고 자국 대학생들의 한 학기 외국수학을 의무화하고 프랑스어 수업만 고집하던 대학들도 영어강좌의 수를 늘리고 있다.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어 인종차별과 폭동 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이니만큼 다음 세대의 타 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수임을 자각해서였을 것이다.

The reasons behind the overall decrease (or stagnation) in students studying overseas, despite the rising number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can be found in many aspects such as evolving social trends and value of education. Increased opportunities to go abroad without studying abroad due to economic growth compared to the past or the perception that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has improved also reflects the trend. The biggest factor, however, is that the perceived merit of studying abroad has been called into question in a way we did not see in the past.

Some of our current college students' biggest concerns regard employability and establishing stable career paths. Meanwhile, the results of studying abroad take time to recognize, given the investment, and some satisfaction achievement indicators, such as social status and economic stability cannot be guaranteed. Studying abroad starts to look like a risky career choice for the post-disciplinary generations.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convince a student that studying abroad is in-fact beneficial. Students may think that experience as an exchange student or participation in a short-term program during vacation will not actually directly help them get a job, and instead prove to be a time-waste when they could be building employability. Persuading students that internationalization experience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lives and careers in the long run could be tough sell for those who are in a hurry to get a job.

Given this background, is international experience really not that advantageous for students? Furthermore, is it okay to push international education out of the core of the nation's education sector? The answer might be available in the EU's Erasmus program.

The EU started the Erasmus program as early as 1987, tearing down the educational barriers of each country, carrying out brisk personnel exchanges with students as well as tea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and in 2014, it opened the stage for expanded exchanges with the even more advanced Erasmus Plus program. With the addition of flexibility in educational exchanges in countries with their own language and culture (a strong cornerstone of the EU) a political and economic community, was laid. Even France, which has a emphasis on its own culture, has opened its doors, requiring its college students to take at least one semester of study abroad, and universities that insisted on French language classes are therefore increasing the number of English lectures. As a country becoming more multicultural, and suffering from racial discrimination and riots, it must have been aware that education of other cultures is essential for the next generation.

As a result, European students are growing up as multicultural talent, ready to lead future society by strengthening their own capabilities with a broad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sm and neighboring countries, and European universities are developing as globally competitive universities through symbiosis resulting from enhanced inter-university exchanges and cooperation. Education experience in foreign universities goes beyond acquiring knowledge, and is different from the experience of traveling. The overseas study experience broadens the spectrum of students' entire life, including skills beyond getting jobs, starting new businesses or research. By enabling students to interact with

그 결과, 유럽 학생들은 국제적 감각 및 다른 나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인재로 성장하고 있으며, 유럽의 대학은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로 인한 공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발전하고 있다. 외국대학에서의 수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서며, 여행에서 얻는 경험과도 차별된다. 해외수학 경험은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외국 학생들과 교류, 타 문화 및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비판 및 창의적 역량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취·창업, 연구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준다.

이와 같은 국제교육의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할 때 또한 글로벌 무한 경쟁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대학은 어떤 국제화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단기적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기본적인 국제화 여건 및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국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대학의 국제화 환경 조성과 학생의 국제화 역량 강화 두 가지로 귀결된다.

이 외에도 한국을 찾는 학생들에게 일류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의 본질적 역량을 키우고 한국사회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는 문화적 발판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 강대국으로의 유학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와 문화에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EU에서 범국가 차원에서 국제화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하고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진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 교류에 집중된 현재의 국제화 틀을 벗어나 교원과 직원의 국제역량 강화와 연구 교류 등 2단계 국제화로 발돋움 위한 의견 공유와 예산, 제도의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21세기는 국제화시대라고 입을 모으지만 교통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속도를 볼 때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의 초입에 겨우 들어섰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듯이 이미 이웃의 경계가 한층 넓어졌고 앞으로는 더욱 초고도로 연결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물 안에 갇혀 자기 문화만 아는 폐쇄사회가 강대국이 된 역사는 없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국립대가 힘을 합쳐 양질의 국제화 틀을 만들어 K-Pop과 K-Food, K-Culture에 이어 K-Education에 세계인이 열광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foreign peers with different ideas and backgrounds, mutual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nd lifestyles develops, and the capability to self-criticize and to expand creativity is honed.

Given the goal of international education, what strategies of internationalization education should Korean universities pursue in order to nurture talent that can play in the global arena with unlimited competition? Education should not be tied to short-term performance when we have long-term goals. Instead, it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high quality international education opportunities by strengthening the basic educational foundation and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in the long run. This comes down to two things: creating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universities and strengthening students' ability to be international.

In addition, universities should develop modern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provide first-class education to students visiting Korea. Also, Korea must provide a cultural foothold that enables students to be absorbed into Korean society. Furthermore, we need to improve our programs and education so that Korean students consider more diverse countries for their study abroad destination not only focusing on advanced, powerful countries.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 long developing internationalization programs in the EU,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se efforts with one mind, together. We will need to share opinions, budget, and support, to advance to the next phase of internationalization. We must embrace teachers and staff, including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apabilities and research exchanges, developing further from the current internationalization framework primarily focused on student exchanges.

Common consensus is that the 21st century is the era of globalization, however, given the pace of transportation and online communication development, it appears we are only just entering the beginning of that era. As the global community suffers from COVID-19, the boundaries of what we have traditionally considered our neighborhood have dramatically expanded, and that expansion will continue in the coming years as we become an even more connected society. There are not many histories of a closed society, trapped in a well, knowing only their own culture, going on to become powerful nations.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I look forward to the day that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work together to create a quality internationalization framework and the world will be as enthusiastic about K-Education as they are with K-Pop, K-Food, and K-Culture.



총장 칼럼 President's Column

KNU-10, 거점 국립대 연합체를 생각한다

KNU-10, Thinking of an Association of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
Byungseok Jeong
Presid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거점 국립대에 대한 총선 공약이 눈에 띈다. 집권여당이 '반값 등록금'과 함께 재정지원을 현재의 1,500억 원에서 6,4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립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새삼 공인한 것으로 보여 반갑다. 주요 정당들의 공약도 연이어 쏟아지길 기대한다.

With the general election approaching, politicians have made noticeable election promises for the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The governing party has promised to increase the financial support from 150 billion Korean won to 640 billion, while pledging to keep the "half-tuition" policy. It is a pleasure to note such promises as they show the social trend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our society. I thereby hope to see more of such promises from other major political parties.



지난 2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안)을 내놨다. 거점 국립대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대학의 집단경쟁력을 확보하고 공동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해 인적 선순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참여대학 간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대통령께서도 국립대 총장들과 오찬을 나누며 국립대학이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당사자인 거점 국립대들이 나서야 할 때인 듯싶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KNU-10'을 갖고 있다. 이제는 지금까지 다져온 연대와 협력의 수준을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파리 1~13대학'이나 미국의 주립대학과 같은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합국립대학'이니만큼 '공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명도 예를 들어 '연합국립대학교-전남(대학소재지)'이라든지, 'KNU-경북' 등의 방식으로 통일할 수 있다. 학생들의 상호교류도 중요하다. 재학기간의 절반(2년)은 참여대학 또는 해외대학에 교류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연합체'일지라도 참여대학의 '개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며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 학생교류를 활성화하되, 우선은 입학한 대학에서 졸업하도록 한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특성화의 기반도 될 것이다.

'연합국립대학교'가 학부모의 호응을 얻으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전액장학금이나 전원 기숙사 제공, 전원 해외교환학생 파견 등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지역 인재 채용에서 타지역 교류학생 몫을 10~20% 가량 별도로 확보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대학의 교육·연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교한 지 60년 이상 지나 심하게 노후화된 환경을 재정비하여, 가상현실, 인공지능, 원격수업 등이 가능한 최첨단 강의실에서 PBL, flipped learning, design thinking 등 새로운 실험적 강의법들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전략적인 발전계획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도 필요할 것이다.

거점대학만 좋아지자는 말이 아니다. 지역중심대학과 교원양성대학들도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거점대학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분원이나 분원을 거점대학에 연계시킴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의 지역균형을 도모할 필요도 크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단계로 여건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을 벌이는 데 2년은 걸릴 것이고, 2

단계에 거점 국립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데 5년은 소요될 것이다. 지역중심대학과 교원양성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3단계까지 합하면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자 규모도 어림잡아 연간 1조 원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교육적 측면만 이 아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살며 블랙홀처럼 모든 국가자원을 빨아들이는 끔찍한(?) 상황을 타개하여야 한다. '찝끔 지원'으로 어렵었다.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판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교는 국가의 공교육의무를 제1선에서 수행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진리탐구에 정진하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국가사회와 인류에 기여하여야 한다. 지역의 전략적 산업발전을 이끌 인재들을 육성해 지역에 정착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거점 국립대학이 거대한 드론의 프로펠러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조화와 협력을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미래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KNU-10'이 '연합국립대학교'로 재탄생하는 날을 그려본다.

Last Februar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sued a proposal on the promotion of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The proposal calls for a network to be established among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which in tur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thereby will stimula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e proposal manifests the agenda to ease the phenomenon of the hierarchical ranking structure among universities in the country and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by creating a virtuous cycle of human resources through the enhancement of research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of the local universities.

In August of last year, President Moon also specifically asked the national universities to play a core role i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uring a luncheon meeting with the presidents of national universities.

In light of the above, I believe that now is the time for us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to put things in motion. Fortunately, we already have the network of KNU-10. We now need to upgrade our current level of cooperation and unity to a stronger network. Eventually, we need to consider forming a federation or an

association of universities similar to the Paris 1~13 University System or a state university system found in the U.S.A.

If we are to establish this united national universities, we need to have commonality among us. For instance, the names of the member universities might be changed to "the United National University –Chonnam (situs of the main campus)," or to "KNU-Kyungpook." A free flow of students among members will be critical. We may want to ask students to spend half of their university years (2 years) either at other member universities or at partner universities abroad.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for each member university to maintain its own identity and character. We need to promote the healthy competition among the members based on their own history and tradition. While encouraging free flow of students, in the beginning, students shall be required to graduate from the member university when they got their first admission. If we guarantee the discretion in curriculum, members can seek their own specialization as well.

If we are to get support from the parents with respect to this idea of "united national universities," the universities need a dramatic amount of incentives. For instance, all students may get tuition waiver, free accommodation, or opportunities for exchange student programs. It will be also helpful if local public companies allocate 10 – 20% of regional quota to the students from other member universities.

Further, the research and education capabilities of member universities must be boosted to have global competitiveness. Facilities that were established more than 6 decades ago shall be renovated to offer state of art classrooms with AI, VR, Remote Learning capacities where

educational techniques like PBL, Flipped Learning, and Design Thinking can be implemented. The human resource systems of the member universities must be likewise reformed to make recruitment of world-class scholars easy and smooth, thereby enabling us to pursue long-term development.

This is not to say that only flagship universities shall receive all the benefits. Such a network should be open to local core universities and teachers' colleges so that they can seek improvement in harmony with the original member universities. The network shall also include headquarters or local branches of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to seek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dmittedly, this is not an easy task. It will take at least 2 years to lay the ground work through mock trials, and then will take another 5 years for the members to join the network. If we are to include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local core universities and teachers' colleges, it will easily take 10 years. It will also require approximately one trillion Korean won in yearly budget.

Despite the above, we should not hesitate. This does not just concern the issue of higher education. One half of Korean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the capital city area that sucks all the national resources like a black hole. We must address and resolve this problem. A mere support in gesture is not going to work. We need to redesign the national system as whole in a way the nation has not seen.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are at the front line of the nation's higher education. We must offer affordable yet high quality education to our society. We need to contribute to the nation and the world through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by maintaining a constant focus on seeking the truth. We shall become the centers of local development ecosystem by cultivating local talents who will lead the advances in local industries.

Our proud nation will be able to open a new chapter in our history, if we, national flagship universities devote ourselves in harmony and mutual trust, like the propellers working together to fly a drone. I am dreaming of a day when KNU-10 will be reborn as a united national university system.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개최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Performance Forum

재학생 인식조사 실시 등 국립대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

제2회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2nd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Performance Forum)이 1월 9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회장 김규용,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주최로 열린 이번 성과포럼에는 39개 모든 국립대학이 참여하여 성과를 나눴다.

2020년 3년차를 맞이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양질의 고등교육 및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허브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사업 예산이 1,540억 원에 이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립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 9월 국립대학들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8월에는 발전협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기도 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는 전국 39개 대학 학생

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일간지를 통해 사업을 심층적으로 홍보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개최된 포럼에서는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국립대학의 역할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를 주제로 한 특강과 함께 대학의 성과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권역별로 발표된 우수사례는 각 대학이 처해있는 상황과 특성을 충분히 살린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2부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나아갈 길'을 제목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5개 영역별로 토론이 진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 김규용 회장은 "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사업간 중복성 방지와 자원의 공동 활용에 의한 효율성 제고, 자발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협업의 시너지가 도출되고 있다."라며 국립대학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주체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Various Attempts to Establish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Universities, including Conducting Student Awareness Surveys

The second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Performance Forum was held at EXCO in Daegu on January 9. The performance forum, hosted by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Development (Chairman Kim Kyu-yong, Dean of Planning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volved 39 national universities sharing their achievements.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now in its third year in 2020, pursues the goal of enhancing the level of public service and competitiveness of national universities so that they can responsibly play the role of hubs that boost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nd the research ecosystem, and drive regional innovation growth. In 2019, it established itself as the largest-ever financial support project for national universities, with its total budget reaching 154 billion won. In September 2018, the national universities formed the Council for Development for the project manage business efficiently, and in August last year, they set up a secretariat within the Council. The Council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has continued a variety of activities to carry out effective projects, including conducting awareness surveys on students from 39 universities nationwide and in-depth promotion of the project through central daily papers.

At the forum, Chaim Choshen, the Israeli Ambassador to South Korea gave a lec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well as a series of reports on universities' performance-related cases. In particular, excellent precedents published in respective fiends made the event a beneficial time for each university in regards to having access to a variety of cases that fully reflect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they face. In addition, the panel discussion titled "The Path for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in Part 2 was decidedly helpful as a debate was conducted in five sections.

Said Kim Kyu-young, president of the Council for the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framework for strengthening public roles and functions, we are creating synergies for collaboration through the prevention of overlap among businesses, through the joint use of resources, and through voluntary network operation," stressing his hope to see national universities take the lead as educational entities in the coming era.



2020년 제1차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의 개최

The First Meeting of the Presidents Council of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8개 국립대 총장 참석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응현황 논의

2020년도 제1차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가 3월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 라벤더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긴급 회의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10개의 거점 국립대 중 8개 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총장이 참석해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교육부)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감염예방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현 상황이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차질 없는 대학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감염 예방을 위한 학사관리, 행정사항, 중국인 유학생 자율보호 현황 등을 공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비대면 강의를 위한 온라인 강의 시

스템 확대와 중국인 유학생 생활관 자율보호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국회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구영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참석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추가적인 학사대책에 관한 학사운영 권고안을 안내했다. 권고안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업 방법은 각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구성원 의견 수렴 후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보직수행경비 개정사항 및 문제점 논의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건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과 관련해 교육연구단 구성과 행정지원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 계획서 작성을 당초 계획보다 2주 연기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당초 5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거점 국립대학교 제전을 올해 9~10월경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The Presidents of Eight National Universities Discuss Response Measures for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Chairman Kim Sang-Dong, president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as held at the Lavender Hall of the Intercity Hotel in Daejeon on March 4. The meeting was convened as an emergency meeting to resolve specific difficulties related to COVID-19.

The presidents of eight of the 10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ttended the meeting to discuss the status of the COVID-19 outbreak and to share the government's (Ministry of Education) recommendations on how to respond to infection prevention. The presidents who attended the meeting shared the view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a problem limited to individual universities, and agreed that they need to discuss and respond in unison to students' needs to ensure their right to study as well as ensuring the smooth operation of all universities. Each university agreed to share updates on academic management,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status of Chinese students' self-isolation to prevent infection spread in each university, and to make up for potential deficiencies.

The Presidents agreed to call for addition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needed to expand the online lecture system and self-isolation measures by Chinese students staying in university dormitories. To that end, the universities plan to push for a meeting with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draw up a supplementary budget.



The meeting was attended by Koo Young-sil, director of the Higher Education Policy Division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who guided the recommendations on further academic measur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recommendation states that the classes should be non face-to-face and conducted online until COVID-19 is stabilized. Also, the operational approach to these classes should be decid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needs and circumstances of the individual university.

In addition, they discussed revision issues for assigned position benefits and problems stemming from the revision of the basic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Budget, and the proposal for the "Four Tier Brain Korea 21 Project." Regarding the Four Tier Brain Korea 21 Project, members agreed to propose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delay drawing up project plans by two weeks,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in forming an education research team and providing administrative support.

Meanwhile, the President's Council agreed to postpone the 2020 festival for al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originally scheduled to be held in May, to September or October this year.



2020년 캠퍼스의 봄은 여전히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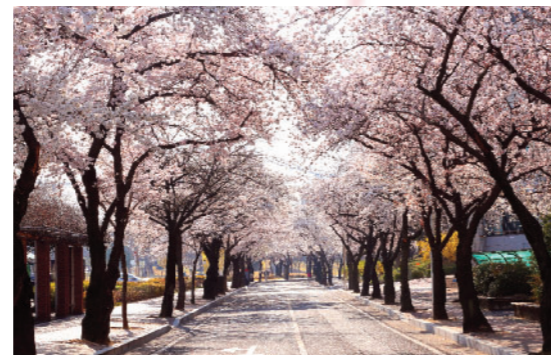
Spring on Campus in 2020 is Unchangeably Beautiful

캠퍼스마다 봄꽃이 가득하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꽃들은 예년처럼 대학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만발한 벚꽃부터 단아한 목련과 풍성한 유채꽃, 연둣빛의 여린 잎까지 대학의 건물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든다. 이 봄이 다가기 전 캠퍼스에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본다.

Campuses are filled with spring flowers. Despite campuses being absent of students during this COVID-19 threat, beautiful flowers are bringing life to colleges as usual. From the blooming cherry blossoms to elegant magnolias, rich canola flowers and soft leaves blend with the university's buildings to create a visual masterpiece. Let's hope campuses will be filled with the sight of energetic students before the end of this spring.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의 봄 전경
Kangwon National University
60th Anniversary Memorial Hall



경북대학교 정문 벚꽃길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 road in from the Main Gate



경상대학교 예절교육관 주변의 봄 풍경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tiquette Education Center



부산대학교 음악관의 목련
Pusan National University Music Building



벚꽃이 핀 서울대학교 정문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 Gate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와 홍매화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injumaru



봄의 정취가 완연한 전북대학교 도서관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entral Library



'제주의 명소' 제주대학교 벚꽃길
Jeju National University



캠퍼스가 온통 봄,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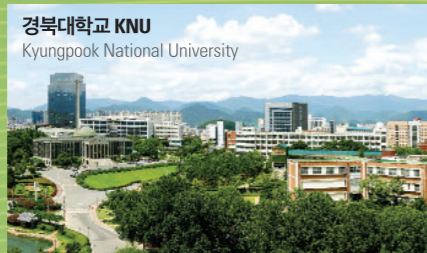
충북대학교와 첫사랑에 빠지다, 대학본부 앞 영산홍길
Azalea road in fro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ad Quarter

회원대학 주요 이슈

Important Issues of Member Universities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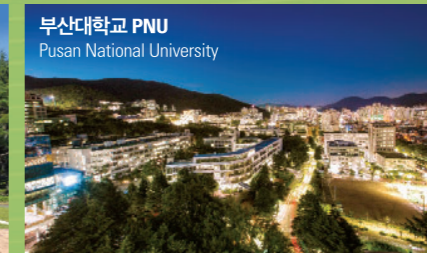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경상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통일한국의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The Hub University of the Unified Kore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kangwon.ac.kr
SNS
www.facebook.com/knu.abs

「강원 지역대학 - 강원도 지자체 '지역혁신 협력기반' 구축」 추진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Gangwon Province to Establish a Basis for Regional Innovation Cooperation



강원대학교가 강원지역 대학 17개교 및 강원도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혁신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 마련에 앞장 서고 있다.

강원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들은 1월 10일(금) 춘천캠퍼스 글로벌경영관 AMP컨퍼런스홀에서 「강원지역대학 소통과 공유를 통한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원대, 강릉원주대, 강원도립대, 춘천교대 등 국·공립대 4개교 ▲가톨릭관동대, 경동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 한라대, 한림대 등 사립대 6개교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한림성심대 등 전문대 7개교 ▲한국폴리텍III대 등 강원도내 총 18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영 강원대 총장을 비롯한 도내 대학 총장과 부총장, 관계자 100여명은 지역사회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지역대학 간 지역혁신협력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각 참여대학과 지자체는 업무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인 「강원권 대학 혁신협의회」를 구성했으며, 1월 20일(월) 강릉원주대와 2월 13일(목) 경동대에서 각각 회의를 열어 대학간 전략적 역할 분담 및 공동대응을 위한 후속사업 마련을 논의했다.

앞으로, 강원대와 각 대학들은 강원도 및 시·군·지자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혁신(지역혁신 및 연계) 성과 공유·확산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상호협력 ▲강원권 대학교육 혁신센터 설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설립되는 '강원권 대학교육혁신센터'는 ▲혁신적 교수·학습법 공동 연구 및 상호 지원·교류 ▲Edutech 공동 연구 및 개발 ▲교육혁신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공유·확산 ▲교육성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강원도는 2020년 대학발전육성사업비를 투입해 '대학 및 지역 균형발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는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대학발전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와 지역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강원대학교를 총괄대학으로 선정했으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 혁신주체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김명동 강원대 기획처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대학-지자체-지역사회 혁신주체들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상생발전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ngwon National University(KNU) in cooperation with other 17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of Gangwon Province is taking the lead preparing a plan for win-win development to cope with the reduction of school-age population and to seek strategies for regional innovation.

Universities located in Gangwon Province including KNU held the "Forum for Regional Innovation via Communication and Sharing of Gangwon Province Universities" at the AMP Conference Hall of Global Management Hall, Chuncheon Campus on January 10 (Friday).

A total of 18 universities in Gangwon Province participate in the forum including

four national and state universities such a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won State University, and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ix private universities such as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Kyungdong University, Sangj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Wonju), Halla University, and Hallym University, and seven colleges such as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Kangwon Tourism College, Saekyung College, Songgok University, Songho University, Korea Golf University, and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At the forum, around 100 university officials such as deans and vice-presidents including Kim Heon-young, Dean of KNU, concluded the Business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Innovation Cooperation Basis of Gangwon Province Universities with the aim of overcoming the risk of high education in local community.

Accordingly, participating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formed the Innovation Council for Gangwon Province Universities, which is a working-level consultative body to efficiently push through the business agreement and its objectives. They also held meetings at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and Kyungdong University on January 20 (Monday) and February 13 (Thursday),

respectively to discuss strategic role sharing between universities and preparation of follow-up projects for joint responses.

In the future, KNU and the other universities along with local governments of Gangwon Province will engage in various cooperation projects, for instance sharing and spreading the results of university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and linkag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to set up a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nd establishing the Education Innovation Center for Gangwon Province Universities.

In particular, the Education Innovation Center for Gangwon Province Universities to be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will work on various projects to promote joint research on innova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provide related mutual support and exchange, to proceed with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Edutech, to engage i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for educational innovation and share and spread the results, and to measure educational performance and conduct joint research.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is also planning to establish the Middle- and Long-term Comprehensive Plan for Balanced University and Regional Development by investing 2020 university development promotion funds.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university development promotion projects since 2018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in Gangwon Province and a total of 3.5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this year.

In addition,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and regional universities formed a task-force team (TF) for the Local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bas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elected KNU as leader. They decide to create a synergy effect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regional innovation players, for instance developing a Basic Plan for Balanced Support of Local Universities and Nurturing Talents.

KNU's Director of Office of Planning Kim Myeong-dong said, "Through this project, we will create a new win-win development model by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system among innovation players such as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beyond simply responding to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Amid the continuous decline in school-age population and social change, we will work hard to make a breakthrough to overcome the issues."



세계를 주도하는 첨성인, 미래를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Wise, creative experts who lead the worl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www.knu.ac.kr
SNS
www.facebook.com/knustory

새해의 희망을 함께 노래하는 경북대 신년음악회 개최

Singing Our New Years Wishes Together with a Concert Hosted by KNU

‘2020 경북대학교 신년음악회’가 1월 15일 경북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북대는 해마다 시도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신년음악회를 열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신년음악회는 해마다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경북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VIVA 2020’을 주제로 열린 2020년 신년음악회는 4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의 소유자가 수 소향을 비롯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부가 예능보유자인 정순임과 신라 고취대, 테너 노성훈, 테너 오영민, 테너 이현섭, 바리톤 최득규, 오보에 조정현 등이 출연해 국악과 클래식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지휘는 주영위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와 노운병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가, 음악은 KNU국악관현악단과 오케스트라 디오가 맡았다. 2020년 경북대 신년음악회 역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은 매 순서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갈채로 큰 호응을 보냈다.

The “2020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New Year’s Concert” was successfully held at the Grand Auditorium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n January 15.

Every yea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lds a New Year’s concert with

city and provincial residents. The New Year’s concert, which started in 2008 and marks its 13th anniversary this year, has established itself as a representative cultural event join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local residents with its colorful and high-quality performances.

Under the theme “VIVA 2020,” the 2020 New Year’s Concert featured singer Sohyang, who has a four octave vocal range, Pansori singer Jung Sunim, the 34th Pansori Heungbu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Shilla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players and tenors Noh Sung-hoon, Oh

Young-min, Lee Hyun-seop, baritone Choi Deuk-gyu, and Oboe player Cho Junghyun. The performers performed well with a mix of Korean traditional and classical music. Ju Young-wi, a professor of Korean classical music and Noh Un-byung, a professor of music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nducted the KNU Korean Music Orchestra and orchestra D.O. The 2020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New Year’s concert also contained a variety of attractions that spanned tradition and modernity. The audience cheered and applauded enthusiastically.



경북대, 생활관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vides Residential Care Center in Fight to Overcome COVID-19

경북대학교가 생활관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4주간 지원했다.

3월 7일 당시 대구광역시는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고, 이 중 1,949명은 병원, 952명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병실을 기다리고 있는 확진자만 2천명이 넘고, 그 중에는 병원 문턱에도 가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북대는 3월 8일, 대구광역시의 요청으로 생활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김상동 총장의 담화문을 통해 이 사실을 외부로 알렸다.

김상동 총장은 담화문에서 “구성원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문제라 무척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경북대가 이뤄야 할 교육적 소명도 정상적으로 이를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경북대가 센터로 제공하는 첨성관은 학부생과 대학원생, 외국인 등이 이용하는 기숙사로 총 681실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다. 평소 학기 중에는 2인 1실로 운영돼 1,362명정도가 사용한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vided one of its dormitories to serve as a COVID-19 residential care center for four weeks.

On March 7, Daegu Metropolitan City had recorded more than 5,000 confirmed cases, 1,949 patients were admitted to hospitals and 952 were sent to a residential care center located at the Central Education Training Center. In addition, more than 2,000 confirmed victims were waiting for hospital rooms from home, some of whom died before they were admitted to a hospital. On March 8,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formed the public of this fact in a statement issued by President Kim Sang-Dong and vowed to provide a residential care center in response to the request by the Daegu Metropolitan Government.



"I had to be very careful because it was a matter directly related to the safety of staff members and KNU students' right to study," Dr. Kim, president of the university, said in the statement.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f the COVID-19 situation is not normalized, it will not be possible f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s to fulfill its educational calling."

The Cheomseongwan Dormitory provid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 a care center, is a dormitory normally used by undergraduate, graduate and foreign students. It has a total of 681 rooms, one basement floor and nine floors above ground. During the normal semester, it offers double rooms for two students, and about 1,362 students call it home.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
SMART GNU

경상대학교

The University with a Promising Future and
Full of Happiness! SMART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gnu.ac.kr
SNS
www.facebook.com/smartGNU
blog.naver.com/gnujinju

경상대, 차세대 대형 민항기용 부품 개발에 앞장

Leading developer of next-generation commercial thermoplastic composite aircraft module parts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관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에 선정

경상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주관하는 '2019년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2019년 7월부터 5년간 약 21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관으로 경상대(GNU)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한국산

업기술시험원(Kti)-한국섬유개발연구원(KTDI)-한국복합소재(KCI)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단일 통로 대형 민항기용 복합재 주익 스킨 일체형 모듈 및 열가소성 복합재 모듈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이후 그동안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에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경상대의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ERC) 핵심연구원 최진호 교수, 권진회 교수, 남영우 교수와 석사·박사급 대학원생 10명이 참여한다.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에 따르면 복합재는 비강도·비강성이 우수하여 항공기에 많이

적용되는 소재이다. 이러한 항공기용 복합재 부품을 더욱 간단하게,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경상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기존 항공산업에 적용된 항공기용 복합재 부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기존 항공기용 복합재 부품은 재활용이 어렵고 용접이 불가능한 열경화성 수지를 재료로 사용하여 제작한다. 열경화성 수지를 성형하기 위해서는 고온·고압의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오토클레이브가 사용된다. 하지만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합재 부품의 진공처리와 같은 전처리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작업의 반복성이 떨어지고, 수지 경화에도 기본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기업과 대학이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었던 데는 경상대의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가 큰 역할을 했다.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센터장 명노신)는 복합재 항공기에 친환경적이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가 접목돼야 한다고 판단해 2018년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함께 'AFP 성형공정 및 용접 기술 기반 일체형 열가소성 복합재 동체 모듈의 원천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Selected for 'Development of Thermoplastic Composite Fuselage for Commercial Aircraft Based on the AFP and OOA Processe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organized by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Starting in July 2019 and over the next five year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will receive approximately 1.75 million USD in funding after being selected for the project 'Development of Thermoplastic Composite Fuselage for Commercial Aircraft Based on the AFP and OOA Processe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TIE) and organized by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KAI).

In addition to GNU,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ST), Korea Testing Laboratory (ktl),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KTDI), and Korea Composites Inc. (KCI) will jointly participate in the project, under the leadership of KAI, to develop integrated thermoplastic composite skin-stringer modules and fuselage modules for commercial aircraft.

The project has been ongoing since December 2019, with the participation of key researchers from GNU Research Center for Aircraft Core Technology (ACTRC), including Professors Jin-Ho Choi, Jin-Hwe Kweon, and Young-Woo Nam and ten master's and Ph.D. students.

According to the ACTRC, composite materials are being widely used in the aircraft industry as they show higher strength and stiffness. For this reason, ACTRC is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to develop manufacturing processes that are mor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using

easily recyclable materials. The project will develop technology with the capability for mass production, which has the potential to shift the paradigm in future manufacturing of commercial aircraft composite module p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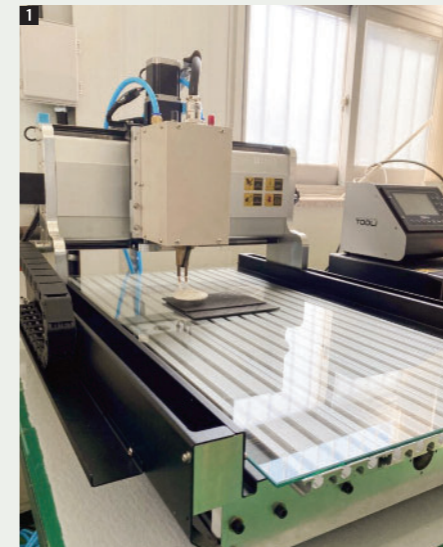
The thermoset-based polymer composites currently used in conventional aircrafts are not only difficult to recycle, but also not applicable for welding. Furthermore, they are manufactured in a time-consuming (more than five hours) and costly autoclave process that requires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and is unsuitable for repeated manufacturing processes.

The ACTRC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launching this research project, which is a joint effort of industry and academic centers with the goal of commercialization of advanced technology. Under the leadership of Director Rho-Shin Myong, the ACTRC recognized that polymer materials of better sustainability and productivity are crucial for next-generation commercial aircraft structures. The ACTRC has been working with KAI o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y for Integrated Thermoplastic Composite Fuselage Module Based on AFP and Welding Technology' since 2018.

참여교수 단체사진
Participating Professor Group Photos



1. 유도 용접 Induction welding
2. 탬프 성형 프레스 시스템 Stamp-forming press system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부산대학교

A University Guided by the Future of Students
A University Loved by the People
Pusan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pusan.ac.kr
SNS
www.facebook.com/PusanNationalUni

**전국 최초 100% 기술사업화 수익 재투자
부산대 기술창업 플랫폼 「PNU AVEC」 준공**

The Whole Revenue from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Reinvested First Nationwide - PNU Completed 「PNU AVEC」, Platform for Technology Startups

부산대가 전국 최초로 100% 순수 대학 기술사업화 수익 30억 원을 들여 기술창업 플랫폼인 「PNU AVEC(피앤유 에이벡)」을 건립하고, 1월 29일 오후 부산대 장전동 캠퍼스 인근의 신축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PNU AVEC」은 부산대가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최적의 원스톱 플랫폼 공간으로 마련했다. 총면적 1,349㎡(406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향후 창업기업에 대한 사무공간 임대료 비롯해 비즈니스모델 수립, 투자유치 및 액셀러레이팅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PNU AVEC」은 대학이 기술을 개발해 기업체에 기술이전한 뒤 얻은 수익금을 모아 기술창업을 위해 재투자한 사례로, 전국 대학 중 처음 이뤄진 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PNU has opened the 「PNU AVEC」, platform for technology startups, after investing 3 billion won, the whole profit made with the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lan. The opening ceremony was held at a site for its new building near the Jangjeon Campus on the afternoon of January 29th, 2020.

「PNU AVEC」 is the best one-stop platform

for future entrepreneurs and successful startup. The total area is 1,349 square meters (406 pyeong), including a basement and five floors above ground. In the future, it will provide rental spaces for business startups, and used as a business entity to establish business models, attract investment, and conduct the Acceleration program.

「PNU AVEC」 is an example of reinvestment in technology startups by using profits accrued by selling developed technologies to the private sector. It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because it is the first attempt of this kind for Korean universities.



**부산대 제21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1순위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선**

Prof. Cha, Jeong-In, Ranks Top in Nominee Election for PNU's 21st President

부산대학교 제21대 총장임용후보자에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1순위로 당선됐다.

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는 2월 4일 교내 경암체육관 3층 주경기장에서 교수·직원·조교 등 모두 1,880명의 선거인 중 1,627명(투표율 86.5%)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 투표와 첫 온라인 투표를 통한 「부산대 제21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했다.

모두 7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이날 치러진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한 기호 1번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득표율 53.679%(환산비율)로 최종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에 당선됐다.

차정인 당선자는 “부산대 발전은 수도권 대학 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유익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역 명문대학들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강력하고도 대승적인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정책 시행을 요구해 대학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정인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특히 학생들의 성장과 성공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원확보율 확대와 학문분야 특성별 지원,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을 위한 행·재정 정부 지원 확보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차정인 당선자는 부산대 법대 79학번(학사)으로,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교수회 부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교내 이의제기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윤리검증 절차 등을 거쳐 교육부에 총장 임용을 추천했다.



Cha, Jeong-In, professor of School of Law, has been nominated by the university to become the 21st PNU President.

The Presidential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held 「The 21st PNU Presidential Nominee Election」 with voting occurring in-person at the main stadium(3rd floor) of Kyungam Gymnasium, and the first online voting on February 4, 2020. Turnout was high with 1,627 of a possible 1,880 (86.5%) votes cast. Eligible voters included professors, school staff, and assistants.

Seven candidates ran for the next presidential nominee election. Candidate No.1, professor of School of Law, Cha, Jeong-In, gained 53.679% of voters and was nominated as the University's preferred candidate. He has previously served as the Dean of the School of Law in PNU.

The nominee said, “The development of PNU has been much greater than other national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areas and has been advantageous to our country. It is also directly connected to encourag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e emphasized that, “One of the important causes of crises for local prestigious universities is their increasing concentration in major metropolitan areas.

I pledge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PNU by demanding policy enforcement that fosters a stronger national university.”

The nominee declared that he would make it a goal to train talented individuals with good character, and he would especially focus on student growth and success. He announced some policy commitments such as increasing the ratio of faculty to students, supporting each academic field by concentrating on their individual features, and secur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government support to foster PNU as a stronghold national university. He entered the College of Law in PNU in 1979. He passed the 28th bar exam in 1986 and worked as a prosecutor and a lawyer. Since 2006, he has been professor of the School of Law, and has previously served as Vice President for General Academic Affairs on the University Council, and the Dean of School of Law.

Meanwhile, PNU recommended the presidential nomine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fter the procedure of objection on campus and research ethics verification from Research Ethics Verification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 of the election.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서울대학교



A Community of Knowledge, Leading the fu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snu.ac.kr
SNS
www.facebook.com/
SeoulNationalUniversity

시흥캠퍼스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관’ 개관 Siheung Campus Opens ‘Smart Center’

서울대학교가 인공지능과 자율자동차, 해양연구, 의학 융·복합연구 등 4차 산업의 허브가 될 시흥캠퍼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흥캠퍼스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스마트관’이 개관했고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스마트관은 2007년 시흥캠퍼스 조성이 계획된 이후 준공된 첫 건물로 시흥캠퍼스의 내일을 조망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세계 유수 대학과의 경쟁을 위해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캠퍼스라는 시흥캠퍼스의 조성 목적과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이 두 개 층에 걸쳐 폭넓게 전시돼 있다. 1층에서는 시흥캠퍼스의 비전과 미래, 마스터플랜 등을 둘러볼 수 있고 2층에는 기숙 시설 일부를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과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시흥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도슨트와 홀로렌즈 관람이 가능하다. 홀로렌즈 관람은 ‘시흥캠퍼스 스마트캠퍼스에서의 하루’를 가상 체험해보는 시설로 자율주행차 연구단지, 해양연구를 위한 대형 시험 수조, 드론 연구를 위한 테스트 베드 등 연구시설을 AR영상으로 관람해볼 수 있다.

스마트관 관람 예약

시흥캠퍼스 홈페이지(siheung.snu.ac.kr)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speeding up the construction of its Siheung Campus, a smart campus designed to be a hub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search in area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cars, maritime research and medical convergence research. The Smart Center, where visitors can virtually experience the future of the Siheung Campus, has opened as a means of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Inaugurated last September, the Smart Center was the first building on the Siheung campus to have been completed, a first step in fulfilling the dream of an SNU “smart campus” that was first envisioned in 2007. The Smart Center is a showcase for Siheung Campus, displaying to visitors the plan and ongoing developments of this ambitious campus,

conceived as a future-oriented spac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that would compete with the world’s leading universities. The first floor showcases the overall vision for the campus, while the second floor introduces visitors to some of the new dormitory facilities.

The Center is open to the public from 10 a.m. to 5 p.m. and closes on Mondays and national holidays. Docent and holographic tours are available by reservation on the Siheung Campus website. Holographic tours provide a virtual experience of a “day on the Siheung Smart Campus,” where visitors can view through augmented reality video campus research facilities such as a research complex for autonomous cars, a massive test tank used for maritime research, and a test bed for drone research.

예약 관람 프로그램

프로그램	관람시간(분)
SNU TIME LINE	5
홀로그램 시어터	15
시흥캠퍼스 AR 조감도	5
미래교육 체험존	5
비전스케치	1



‘서울대-병원-지자체’ 상호협력 협약 체결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spital – Local Government Mutual Cooperation Agreement



또한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서 지역 사회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과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신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세정 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흥시 임병택 시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대가 그간 교육, 연구, 지역 사회 공헌 등을 위해 관계를 다져온 경기도, 시흥시 외에 새로운 협력주체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포함되면서 의료와 복지 등 협력의 범위와 분야가 한층 다각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에서 오세정 총장은 “과거 교육과 연구에 방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현재의 대학은 보다 다채롭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서울대의 역할을 되새기고 지역과의 상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한걸음씩 전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올

해 해에도 상호간 더 많은 교류와 논의, 협력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n February 14, Seoul National University signed an “agreement for mutual cooperation and joint development” with Gyeonggi Province, Siheung C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to meet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President Oh Se-jung,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ung, Siheung City Mayor Lim Byeong-taek,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resident Kim Yeon-soo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President Koo Young attended the signing ceremony, which was held at the new building of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have become new partners, joining Siheung City and Gyeonggi Province, with which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cooperating

for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contribution,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further diversify the scope of cooperation in fields such as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

“Universities these days are required to carry out more diverse and complex functions than they did in the past, when the emphasis was solely on education and research,” President Oh Se-jung said at the signing ceremony. “With today’s agreement, we hope to further reflect on SNU’s role in the community, work towards increased cooperation with partner agencies and local communities, and see more exchanges and discussions this year.”



공지와 희망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힌다 전남대학교

Pride & Hope
Cherish the Truth, Enlighten the Worl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nu.ac.kr
SNS
www.facebook.com/ChonnamUniv

전남대학교, 축적된 연구역량 꽃피워

Fruitful Results of CNU's Research Capabilities

전남대학교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역량을 한껏 발휘하며 꽃을 피우고 있다. 전남대는 연구자기획역량 강화사업, 예비연구사업단 발굴·지원, 신진 및 중견연구자 지원, 연구년제 운영 등 철저한 연구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다져온 연구역량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전남대 연구소기업 손세정제 'Noro-X' 코로나에 '99.9% 효과'

전남대학교 연구소기업이 개발한 손세정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공동 창업한 (주)바이오쓰리에스(대표 김두운 전남대 농식품생명공학부 교수)는 자체 개발한 바이러스 전용 손세정제 'Noro-X'가 코로나 바이러스(hCoV-229E)에 대한 99.9% 이상의 항바이러스

효력이 있다는 인증서를 2월 17일 인수공통 감염병연구소로부터 받았다. 'Noro-X'는 독성을 없앤 채 추출하는 기술과 뛰어난 정제기술의 우수성도 인정받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2017)에 꼽히고,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인증(NET, 2018)도 획득한 바 있다.

전남대 공동연구팀, 로봇으로 줄기세포 날라 무릎연골 재생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실은 마이크로 의료로봇을 이용해 무릎연골을 재생시키는 동물실험에 성공했다.

전남대 최은표 교수(기계공학부) 공동연구팀은 '스텝 셀 네비게이터'로 명명된 마이크로 의료로봇에 사람의 지방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실어 손상된 연골부위로 정밀하게 이동시키고, 이식된 줄기세포는 다시 연골세포로 분화돼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시키는 세포 및 동

물실험을 토끼를 대상으로 시행해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 연구는 기존 침습적 시술이 많은 양의 세포를 주사 주입하거나 절개를 해야 하는 단점과 애로를 극복한 것으로, 퇴행성관절염 치료는 물론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는 로봇연구분야 최고의 국제학술지로 인정받는 '사이언스 로보틱스'(영향력지수 19.4) 1월 22일자에 게재됐다.

전남대 연구팀, 암세포 죽이는 나노입자 개발

전남대학교가 사람의 몸속 암세포에서 나오는 활성산소와 반응해 암세포를 죽이는 나노입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전남대 박인규 교수(의생명과학과) 연구팀은 화순전남대병원 배우균 교수, 충남대학교 허강무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중앙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분해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광역학 나노입자를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입자는 활성산소에 반응해 중앙에 선택적으로 다가가 항암제와 광역학 치료물질을 동반 방출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약물·광역학 병합 치료도 가능해 기존 항암 치료 효과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기술인용논문색인(SCI) 생체재료 분야에서 상위 1%에 속하는 Biomaterials(영향력지수 10.273) 온라인 판에 발표됐다.

CNU is witnessing the fruitful results of its outstanding research accomplishments. As it has operated various programs for researcher-friendly environments, CNU is being recognized for excellent results from its efforts such as programs for research designing capabilities, discovering and supporting programs for preliminary research projects, supporting programs for new and senior researchers, and its research year program.

Hand Sanitizer Developed by CNU Research-based Affiliate Proven 99.9% Effective against the COVID 19 Virus

One of CNU's research-based spin-offs developed a hand sanitizer that was found to be 99.9% effective in inactivating the novel human coronavirus.

According to Bio3S Co., Ltd. (Professor Kim Du-woon, Division of Food Technology, Biotechnology & Agrochemistry), a research-based spin-off co-founded by CNU and also affiliated with the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Noro-X, the hand sanitizer Bio3S developed, received a certificate of efficacy from the Korea Zoonosis Research Institute on February 17th. In the antiviral test of the active ingredients of the disinfectant solution, Noro-X was proven to be 99.9% effective against corona virus (hCoV-229E).

Noro-X was selected as being among the 100 Excellent National R&D Accomplishments in 2017 in recognition of its excellence in the technology of refining and extracting substances without toxicity. It also received NET, 2018, a certification for new technology, issu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2018.

A CNU Joint research team Regenerates Knee Cartilage with Stem Cells

A CNU research team succeeded in an animal experiment that regenerated knee cartilage using a micro medical robot (nanobot) carrying stem cells.

Professor Choi Eun-pyo (Faculty of Mechanical Engineering) introduced a micro medical robot named 'Stem Cell Navigator' for regenerating damaged knee cartilage. The nanobot carries stem cells from human fat and precisely moves them to the damaged cartilage, and the transplanted stem cells, which are

differentiated into chondrocytes, were proven successful in the rabbit and cell experiments.

This study overcomes the disadvantages and difficulties of injecting or incising a large amount of cells by conventional invasive procedures and is expected to replace surgical practices for both degenerative arthritis as well as for artificial joi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published on January 22nd in *Science Robotics* (Influence Index 19.4), which is one of the best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in robot research.

CNU Research Team Develops Nanoparticles That Kill Cancer Cells

A CNU research team succeeded in developing nanoparticles that kill cancer cells by reacting with free radicals from cancer cells in the human body.

The research team of Professor Park In-gyu (Department of Medicine and Biomedical Sciences) developed a

photodynamic nanoparticle that kills cancer cells while being decomposed by free radicals generated in tumors through joint research with Professor Bae Woo-Kyun (CNU Hwasun Hospital) and Professor Huh Kang-moo (Department of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nanoparticles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can selectively respond to tumors by reacting to free radicals and kill cancer cells by emitting anticancer drugs and photodynamic therapeutic substances simultaneously. Combined drug and photodynamic therapy is also possible, which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effects of existing anti-cancer treat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published in the online edition of *Biomaterials* (Influence Index 10.273), which is in the top 1% of journal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citation indices (SCI) in biomaterials studies.



1. (주)바이오쓰리에스 김두운 사장(오른쪽)과 권요셉 부사장 Mr. Kim Du-woon(right), President of Bio3S, Inc. and Mr. Kwon Joseph, Vice President (left)
2. 자체 개발한 손세정제의 항바이러스 효력 인증서 Certificate of Antiviral Effectiveness of Independently Developed Hand Sanitizer

3. 무릎연골재생 줄기세포 마이크로로봇 이미지 The Image of Knee Cartilage Regeneration Stem Cell Micro-Robots
4. 암세포를 죽이는 나노입자 개념도 The Concept Flow Chart for Nano Cancer Killer Particles
5. 최은표 교수 Professor Choi Eun-pyo
6. 박인규 교수 Professor Park In-gyu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



The Best Gloc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bnu.ac.kr
SNS
www.facebook.com/jbnu1947

“따뜻한 동행으로 코로나19 고통 나눠요”

“Let’s get though COVID-19 together with warm donation campaigns”

교직원 점심식사 인근 상권 이용 캠페인 대대적 전개

Wide campaign for JBNU
faculty members to use
local restaurants for lunch.

전북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시름에 잠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돕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성금 모금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최근 ‘후원의 집 이용 캠페인’ 안내와 후원의 집 목록을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고, 점심시간 등에 지역 상권을 적극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후원의 집’은 그간 대학 발전을 위해 매달 기부해온 곳으로 100여 곳이 있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들은 학생 장학금 등에 쓰인다.

전북대는 그동안 받은 것을 돌려주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 돕기 성금을 자율적으로 모금한 뒤 소중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시름에 잠긴 이들과 따뜻하게 동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BNU is launching a campaign to help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suffering from COVID-19.

Furthermore, all faculty members will launch a fund-raising campaign to help to fight against COVID-19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JBNU has recently notified all faculty members, as well as ex-faculty members, of its “House of Support” using, and encouraged them to actively use local commercial districts for lunch. “House of Support” has been a monthly donation campaign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and this campaign has more than 100 locations. These donations were used for scholarships for students.

JBNU decided to launch the campaign to return what it has received all past years and help to small business owners in this difficult situation.

It will also voluntarily raise donations among all faculty members to help Daegu city and Gyeongbuk Province.

“We will warmly accompany those who are in distress, along with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VID-19” said the JBNU President, Kim Dong-Won.



글로벌 우수인재의 시작, 전북대 HRC ‘호응’

The Beginning of Glocal Outstanding Students, JBNU HRC, ‘Growing popularity’

전북대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Honors Residential College 이하 HRC) 프로그램이 신입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HRC 신입생 선발 원서접수 결과, 100명 모집에 607명이 지원했다.

HRC는 새로 추진된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4년 동안 기숙사비 면제, 어학교육 지원, HRC 교과-비교과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2학년 과정에는 아시아권 국가로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산학-진학형으로 나누는 3, 4학년 과정에서는 산학형을 통해 우수기업과 연계한 장학금 지원이, 진학형을 통해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1학기 이상 활동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최종 성적표에는 HRC우수학생 인증마크가 부여되고 대학원 등록금 면제, 교비유학생 선발 시 가점 부여, 본교 박사 후 연구원(Post-Doc) 선발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JBNU launched Honors Residential Colle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HRC”) Program to foster glocal talents, which is gaining popularity among freshmen.

Recently HRC Program recruited 100 students, but 607 students have applied for the program.

The HRC is a newly promoted program for training talented students, as well as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to cope with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college education due to the rapid decline of student population. HRC Students can receive various supports such as four years free accommod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 HRC curriculum and non-textbook programs.

In particular, sophomore students will be sent to Asian countries and all expenses will be provided. The junior and senior students, which are divided into industrial and academic types, will be supported by scholarships through industry-academic support and get benefits from more than one semester’s activities in research lab under an advisor professor’s guidance.

After completing the HRC curriculum, student will be given report cards with HRC student certification mark, which will bring benefits, such as tuition fee waiver for the Graduate school, obtaining bonus points for the Selection of university scholarship students to study abroad, and bonus points for selecting a Post-Doc in JBNU.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제주대학교



To the Basic, For the Fu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jejunu.ac.kr
SNS
www.facebook.com/
제주대학교-1536145756655629

대학일자리센터, 4년 연속 우수 선정.. 국립대 유일 입학 때부터 졸업 후 까지 체계적 진로·취업 지원

JNU Jobs Center gets superior rating among national universities for 4 consecutive years, providing career and job support program for freshmen through post-graduates

제주대학교가 2019년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결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우수(최고 등급) 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고용노동부-대학-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청년층 대상 진로지도 및 취·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년 전국 105개 대학일자리센터(2019년도 기준) 대상 운영결과평가를 실시한다. 총 5년의 사업기간 중 3회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추가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대는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까지였던 사업기간에 이어 1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생애주기별 진로·취업지원 체계인 'JNU_CLIPs'를 자체 개발 및 운영, 신입생부터 졸업 후 까지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 각 단과대학 내 진로·취업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전공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내 산재되어 있던 진로·취업지원 관련 시스템(학사, 비교과, 현장실습운영, 상담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 일자리 지원서비스(워크넷, HRD-Net, Q-Net 등)를 연계한 통합 온라인 진로·취업지원 시스템인 'JNU e-CLIPS'를 개발 및 운영해 학생 개개인의 입체적 역량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제주지역 거점 센터로서 정부-대학-기업간 청년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제주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타대학생, 고등학생 등 지역 내 청년층 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도에는 기존 타 대학 및 특성화고 대상 진로·취업 상담, 특강 등을 제공하던 '찾아

가는 대학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을 일반고까지 확대 실시했다. 기업 채용정보 설명회인 'MINI JOB FAIR'를 수시 개최해 도내외 우수기업들과 제주지역 청년층 만남의 장 마련에도 앞장섰다. 또 제주지역 특화 산업인 항공산업 우수인재양성 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항공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석연 총장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제주지역 청년 눈높이에 맞는 더욱 내실 있고 실질적인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n the 2019 evaluations of the university job center project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Jeju National University earned the top performance rating for four years in a row.

The university jobs center project jointly launch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regional autonomous organizations, aimed at providing career, job and start-up services for college age youths through the 105 participant university jobs centers nationwide. The jobs centers are annually reviewed and evaluated in terms of their project performances. A university garnering at least three superiority ratings during the 5-year project term is eligible for one-year complimentary grant from the sponsors.

Jeju National University was the only job center institution cited for a superior performance for four consecutive years. Consequently, the university gets its project grant extended for one additional year from February 2021.

The JNU university job center developed a systematic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 entitled the "JNU_CLIPs" for the students and graduates covering their life stages spanning from freshman through post-graduation years.

In addition, each JNU college unit offered a career/job office offering professional tailor-made consulting service.

The university also consolidated the college career/job related services (academic and comparative studies, on-site training, consulting, etc) scattered around the campus into a unified system encompassing the government jobs support services (Worknet., HRD-Net, Q-Net, etc) and the compatible online "JNU e-CLIPS" system managed to support individual students in designing individually matched careers.

Representing as a Jeju regional flagship university jobs center, the JNU university center offers a variety of youth services not only for the JNU students, but also for other university and high school youths through the youth employment tripartite governance system,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Notably in 2019, the "mobile university

job center" providing career/job consulting services visiting other universitie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extended its service activities to all other high schools in the province.

Also, the industry employment briefing session "MINI JOB FAIR" opened frequent opportunities for the Jeju area youths to meet the regional industries with attractive jobs to offer.

The JNU jobs center has been active in cooperating with the Jeju-based industrial corporations such as airlines in generating aviation service jobs through personnel training for which the center received a meritorious performance award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ponding to the recognition the JNU center earned this year, President Song Seok-Eon promised to implement a more substantial support service program for the Jeju area youths seeking quality jobs and careers.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충남대학교



The 100th Anniversary of CNU,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nu.ac.kr
SNS
www.facebook.com/CNUNOW

충남대학교 제19대 이진숙 총장 취임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Create New University CNU

Professor, Jin-Sook Lee Inaugurated as the 19th Presid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NU 100 Years -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Creating a New CNU!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진숙 교수가 2월 28일, 제19대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진숙 총장은 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진숙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를 고려해 3월 9일, CNU Hall에서 열린 '월요정책회의'로 취임 행사를 대신했다. 또, 이날 오후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 취임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립대학 총장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응원했다.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해

충남대 건축계획 석사,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건축환경계획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89년부터 충남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이진숙 총장이 제19대 충남대 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충남대는 개교 68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장이 대학을 이끌어 가게 됐다. 재직 기간 동안 산업대학원장, 공과대학장, 국제교류본부장 등 보직을 역임했으며, 한국환경조명학회 회장, 한국색채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진숙 총장은 임기동안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했다. 대덕캠퍼스 건강

검진센터 설립, CNU Honor Scholarship 제도 도입, 국제학부 설립, 취업연계 해외인턴 및 취창업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연구 우수 교수 지원, 인문사회/예체능/기초과학 진흥사업 지원, 지역협력본부 설치, CNU 혁신파크 건립, 세종 특성화 캠퍼스 조성 및 치의과대학 설립 추진, 연구산학부총장제 도입, 종합재정회계시스템 구축, 임기 내 발전기금 500억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진숙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감, '품격', '미래'를 충남대학교 운영의 핵심가치로, 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자긍심과 품격을 드높이면서 교육과 연구, 대학운영 체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어 질적 도약과 성숙을 이뤄내겠다"며 "CNU 100년,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충남대학교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Professor Jin-Sook Lee of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ook office on February 28 as the 19th presid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Jin-Sook Lee will serve a four-year term from February 28 to February 27, 2024. The inauguration ceremony was replaced by the "Monday Policy Conference" held at CNU Hall on March 9. The decision to do this was made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eriousness of the spread of COVID-19. Also, in the afternoon of that day, president Lee visited CNU Hospital, a nationally designated hospital for inpatient treatment, and encouraged medical staff struggling to fight COVID-19. President Lee stated that it is one of the responsibilities of a president of a national university to assist the efforts to overcome COVID-19 rather than to attend an inauguration ceremony. She also mentioned that even though the whole nation is worried about COVID-19, we will be able to overcome it thanks to the dedicated efforts of medical staff.

President Jin-Sook Le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Education at CNU. She was awarded a master's degree in architectural planning by CNU and a Ph.D. in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planning by the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President Lee has worked as a professor at CNU since 1989. With the appointment of president Lee as the 19th president of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as a female president leading it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versity's 68-year history. During president Lee's tenure, s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ean of College of Engineering, and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Headquarters. President Lee has also bee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Lighting and Korea Color Society;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rchitectural Policy;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 member of the Central Construction Technology Review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a member of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resident Lee has a broad range of plans and intends to focus on the following during her term: establishing a Daedeok Campus Health Examination Center, introducing a CNU Honor Scholarship system, establishing

international studies, strengthening overseas internship programs with job-related education and employment-related entrepreneurship, supporting excellent teaching/research faculty, support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echnical/basic science promotion projects, introducing a regional cooperation headquarters, establishing a CNU innovation park, establishing a Sejong specialized campus and dentistry college, introducing the presidential system of research and industr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financial accounting system, and raising 50 billion won for a development fund.

During president Lee's inaugural address, she presented core values of operating an administration system with empathy and dignity, a future that transforms education and research, and a university management system that is future-oriented while enhancing CNU's pride and dignity as a regional, national university. It was stated that a qualitative leap will be made, and maturity will be achieved. President Lee also said, "We will be with the family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r the 'CNU 100 years – a new start for a great future'."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 충북대학교



A Dynamic Future that We Will Open Togeth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ME PAGE
www.chungbuk.ac.kr
SNS
www.facebook.com/cbnu1

충북대 도서관,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eborn as a complex cultural space with local residents!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충북대는 지난 2019년 청주시와 청주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중앙도서관 내 유휴공간을 시민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도서관 신관 내 4층, 5층 공간을 시민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청주시에서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다.

중앙도서관 신관 4층은 대학과 지자체의 상생 협력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행복(파우스티타스), 사랑(아모르), 나눔(임페르티오), 진리(베리타스)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조합인 파이브(FAIV) 스페이스로 명명했다. 이 공간은 오픈형 열람공간으로 학생과 시민이 조화롭게 학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또한, 학생들이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좌석예약

을 할 수 있는 스마트열람코너, 온돌이 설치된 휴게마루, 카페 분위기를 낸 중앙 라운지가 조성됐다. 5층은 시민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사랑방을 구성했다. 이 공간은 학습 목적을 위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들과 달리 인문 교양 여가를 즐기기를 위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패턴을 고려해 휴식 학습 정보검색 강의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시상식, 화제, 강연 등 도서관의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는 개신시네마를 설치했으며, 매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CBNU) library was reborn as a complex cultural space with the local community. In 2019,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igned MoU for recreating idle space in the central

library as a civic complex cultural space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education and cultural services to Cheongju and its citizen. The new wings on the 4th and 5th floors in the central library were rebuilt as a civic complex cultural space and thanks to the financial support of Cheongju city. The 4th floor of the new building in the central library is a space for win-win coope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local governments. The space has been named FAIV, a Latin combination, which means happiness(Faustitas), love(Amor), sharing(Impertio), and truth(Vertias). The space has been created as an open reading area where students and citizen can learn and relax. Students can make their seat reservations for a smart reading corner through a mobile application. In addition, there are "ondol" floors in the resting area and a central lounge with a café atmosphere. A reception room has been set up for the citizen only on the 5th floor. This space was designed to allow citizen to enjoy their various activities in their free time by considering their pattern of the library usage, unlike students who visit the library mainly for learning purpose. It also has a Gaesin Cinema, where the library events, such as awards ceremony, film festivals, and lectures are held. At present, it is running a weekly film screening program every week for local residents.



충북대, 2020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최종 선정 재난형 동물감염병 현장 대응 전문인력 양성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inal choice to carry out the 2020 Agri-food Technology Convergence Creativ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Fostering experts to counteract deadly animal infectious diseases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농림식품축산부가 발표한 '2020년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 사업(동물감염병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 동물감염병 현장중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국가 연구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수의방역대학원을 설립해 오는 2021년 3월부터 선진국 수준의 재난형 동물 감염병 현장대응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며, 첨단 동물감염병 연구과제도 4년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이번 과제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총괄 책임을 맡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이완규 교수가 주관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전북대 수의대와 건국대 수의대가 각각 핵심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이다.

3개 수의과대학 모두 수의방역대학원을 설립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한 방역전문가 양성 교육사업과 총 10개의 연구사업을 나눠 진행하는데, 충북대는 동물 감염병 질병진단, 전북대에서는 방역방제, 건국대에서는 역학기술개발에 대해 연구한다. 이를 통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동물감염병 현장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고병원성 감염병의 조기예측과 진단·방역 등 방역전주기를 최신의 기술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양돈·양계·축우 분야 소모성 감염병에 대해서도 선진국 수준의 진단·방역·역학기술을 구축해 축종별 축산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완규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동물감염병 방역을 책임질 전문가 양성은 물론이고 동시에 진행되는 10개의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that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as selected for the '2020 Agri-food Technology Convergence Creativ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Animal Infectious Diseases). This project aims at cultivating field-oriented biosecurity specialists of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as a national research projec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ill establish the first graduate school of Graduate school of veterinary biosecurity and protection in Korea and from March 2021, it will try to cultivate field-oriente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ith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for fighting against disaster-related animal infectious diseases. Simultaneously it will carry out the advanced animal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projects for 4 years. In particular,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s in charge of this project under the guidance of Prof. Wan-Kyu Lee, the head of this research project.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Konkuk University participate in this consortium-type of project as core organizations. All three Colleges of Veterinary Medicine will establish graduate school of veterinary biosecurity

and protection and conduct a total of 10 research projects as well as education programs for training prevention experts for utilizing their strength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tudies the methods of animal infectious diseases diagnosis, quarantine control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epidemiological technology development at Konkuk University. Through this project,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 shortage of experts in the field of animal infectious diseases emerging as a serious problem in recent years, and to respond to the full prevention cycle such as early prediction, diagnosis, and prevention of highly pathogenic infectious diseases with the latest technology. In addi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productivity of livestock industry will be improved by developing diagnostic, quarantine and epidemiological technologies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for fighting against contagious infectious diseases occurring in pigs, poultry and cattle. Professor Wan-Kyu Lee hopes that through this project we will not only train experts responsible for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but also catch both rabbits by carrying out 10 research projects successfully.

Korea NU10

Introduction to Korea NU10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수갑 President Kim Sukab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조화, 품격, 미래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역동적 미래를 그리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raws a Dynamic future based on the three core values of Harmony, Dignity and Future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President Kim Dongwon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2, 2015, 2017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OI(2012, 2015, 2017)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송석연 President Seok-Eon S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기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오세정 President Oh Sejung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진숙 President Jin-Sook Le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착수,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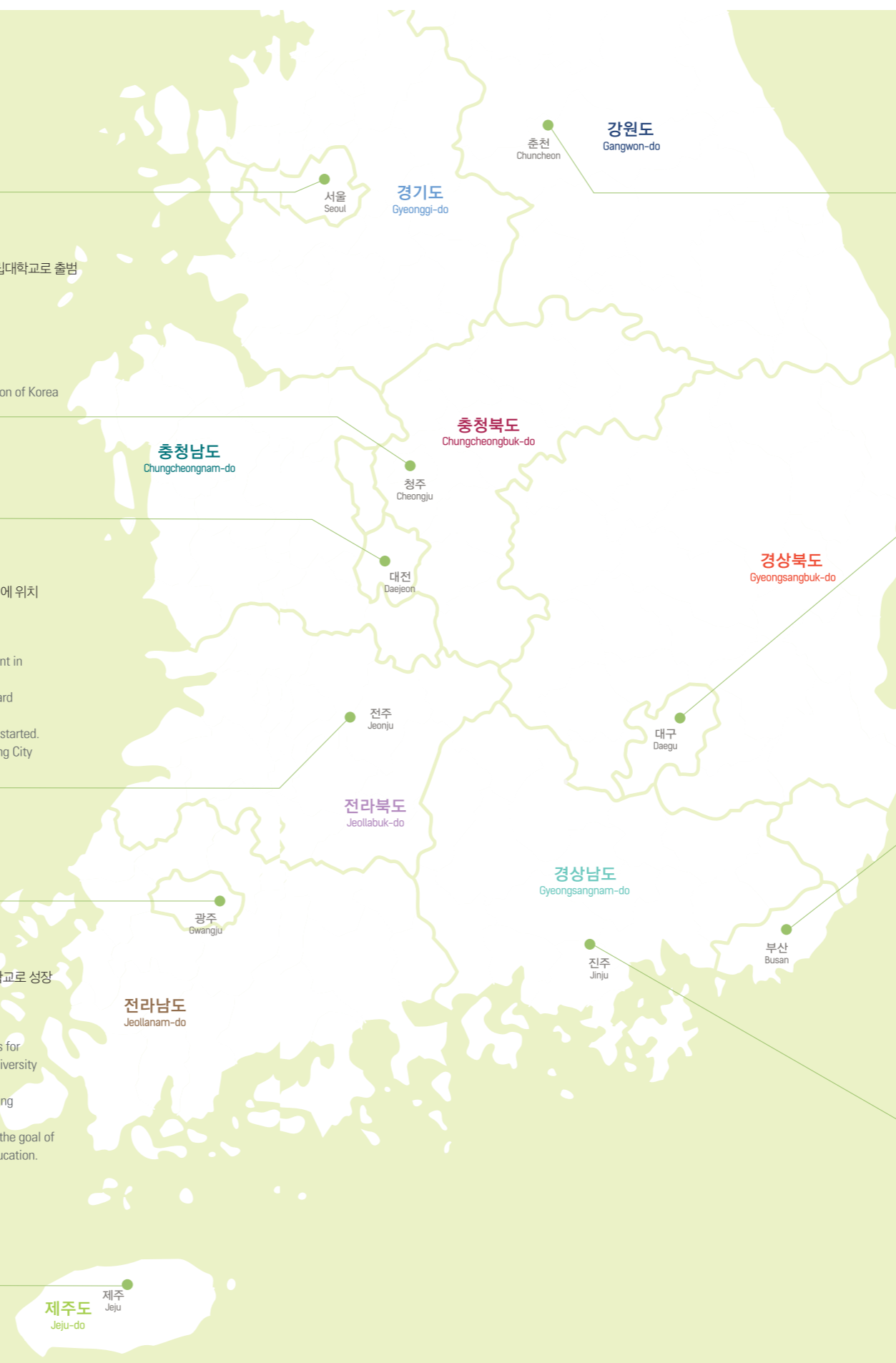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Construction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tarted.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병석 President Jeong Byungseo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 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어젠다 2021 수립, 미래형 창의 융합교육 선도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CNU recently promulgated and announced "Agenda 2021" with the goal of leading innovative convergence with a focus on creativity in education.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현영 President Kim Heonyoung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 국립대 취업률 1위(2018년 1월 정보공시 기준)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the information notice in January 2018)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상동 President Kim, Sang-D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금지·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瞻星人)' 양성
- QS 세계 대학 취업능력 랭킹 국내 7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瞻星人),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7th in Korea in the QS World University Employability Rankings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전호환 President Ho-Hwan Chu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경상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이상경 President Sang-Gyeong Lee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501, Jinju-daero, Jinju, Gyeongnam, 52828 Korea

- 1948년 경남 도립 진주농과대학 개교, 1972년 '경상대학'으로 교명 변경
- 식물생명과학, 항공기계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
- 중국 상하이자오통대학 발표 '세계대학 학술순위' 국내 11위(2018)

- Founded in 1948 as Jinju Agricultural College, it was accredited as a national university and renamed a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 1972
- GNU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tier universities in three academic fields in Korea such as life science, aerospace and mechanical systems, and nano and advanced materials
- According to the 2018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GNU was ranked within the 11 top universities in Korea